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루카 15,6)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원목자

2010년 10월 20일

임OO 어르신과의 첫 만남은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시던 오후였다.

창가 쪽 침상에 누워계신 어르신은 왜소한 모습으로 다소 긴장되어 있었으며 몹시 고통스러운듯 찡그린 얼굴로 돌아누우시며 나와 눈을 마주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혼자 계시네요” 하고 여쭙니 아주 작은 소리로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지금 간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르신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잠시 머물다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저…… 내일 다시 뵈러 올게요” 하며 병실을 나왔다.

2010년 10월 21일

다음날은 창가 쪽 침상에 누워계신 어르신은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나도 데레사로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을 흐리신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은 일어나 앉으시며, 너무 오랫동안 냉담해서…… 그들이 드리운 표정을 지으신다. “오랫동안 냉담하셨다니 몇 년되셨는데요?” “한 50년정도”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군요.”

데레사 어르신은 성당을 바라보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을 말씀하시며 답답하신지 한숨을 내 쉬시며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신다. 데레사 어르신 손을 꼭 잡아드리며 “이제 이곳에 오셨으니 마음 편히 가지시고 천천히

준비하셔서 고해성사, 병자성사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고개를 드시며 “수녀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나는 더 바랄것이 없어요” 하시며, 밝게 웃으셨다. 가족 중 혼자만 신자셨던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한번도 성당 나가자는 권유도 하지 못하셨다. 어르신의 기억을 빌어 세례 받으셨던 곳을 추적하여 확인을 했지만 세례 받은 근거는 있으나 교적은 찾을 수 없었다. 재 교적을 만들기 위해 현 주소지 소속 본당 사무장님께 사정 말씀을 드리니 재작성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것 몇가지만 해 달라신다. 어찌나 반갑고 감사한지 어르신께 소식을 전하니 너무 기뻐하셨다.

2010년 11월 3일 수요일

오후에 어르신이 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하셨다. 늘 별때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크게 느껴졌는데 마음 깊숙이 쌓아두셨던 보파리를 풀으시고 싶으신지 조용한 곳에서 만나기를 청해 오셨다. 마음 준비를 하고 어르신을 상담실로 모셨다. 냉수 한 컵을 청하시더니 긴 세월 동안 삶의 역사를 울컥 하실때마다 물 한 모금을 드시며 천천히 풀어 내셨다.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모두 내려놓으시고 평생을 바라셨던 주님께 맡겨 드리세요.” 어르신께서 “이제 속이 뻥 풀리는 것 같다요”라고 하시며 “내일 성사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르신께서 그동안 마음 준비 해오셨으니 내일 신부님을 모시고 성사를 보시도록 준비할게요.” 그 날 밤 어르신은 숙면을 하실 수 있겠다며 저를 보고

감사하다 인사하셨다.

11월 4일 목요일

50년만의 고해성사로 인하여 아침부터 병동은 분주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해 드리고 간호사들은 꽃바구니를 준비하였다. 오후에 신부님이 오시어 고해성사 보신 후 병자성사를 받으셨는데 간호사, 가족, 봉사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축하를 해 드렸다. 테레사 어르신은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며 기뻐 하셨다. 마침 회진 중이셨던 교수님과도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오늘의 복음이 루카복음 15,3-6의 말씀으로 되찾은 양의 비유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는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 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 복음처럼 예수님이 제일 기뻐 하셨을 것이고 다들 오늘 복음이랑 너무 잘 맞다고 하면서 모두 기뻐하셨다.

몸은 성당을 향해 갈 수 없었으나 평생을 하느님을 갈망하며 살아오신 테레사 어르신의 굳건한 믿음이 오늘의 큰 희망의 은총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고 성사 준비를 해드린 나도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되었다. 어르신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순간순간 살아야함을 느끼게 되었다.

자원봉사자

첫 만남

오늘 처음 뵈게되는 임OO씨는 몸이 가냘프시면서 키도 작은 편입니다.

병원에 오신지 이틀 밖에 안되어 적응도 잘 안되고 환자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안되어 적절한 처방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다.

며칠동안 낮이고 밤이고 전혀 주무시지 못하고 앉아만 계시면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말씀드릴수도 없고 마땅한 말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잠을 주무시게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 밖에 없다.

그래서 침상 머리쪽 시트를 감아 올려 고추 세워서 앉은 자세로 등을 기대게 하여 드리고 베개가 머리에 닿도록 해드리니 깜박깜박 잠이 들었다 하신다.

아들이 옆에 혼자 와있다. 직장에 다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아들을 낳아 특별 휴가를 한달 얻었다. 10월이 끝나면 11월초부터 다시 출근을 해

야 한다고 한다. 임OO님이 거든신다. 외아들이라 구, 딸 여섯에 아들 하나 두었고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겠는가 어머니처럼 곱상하면서도 미소가 깨끗한 모습이 착한형이다.

두 번째 만남

저녁무렵에 병원 병실을 찾았다.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잘 하시어 통증도 조절되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되었나보다. 식사시간이다. 죽이 나온다. 밥공기보다 커보이는 주발에 가득 나오는데 반찬까지도 다 드신다고 한다. 천천히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서 하루 세 끼를 다 드신다고 한다. 그리고 대소변도 잘 보시고 잠도 잘 주무시니 이게 바로 삼패 아니겠는가?

임OO과의 만남은 이제 두 번째,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다. 누가 한두번 만남에 바로 마음을 열겠는가? 아직 나도 그런 사람 만난적이 없

는 것 같다.

‘어찌하면 이분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사회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사업성취 하려면 목욕을 같이 해보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환우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목욕을 시켜드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찌해야 할까? 발마사지는 좀 약한데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접근해야만 한다. 정성껏 하면 목욕시켜드리는 효과만큼 마음을 열겠지…….’

세 번째 만남

만나보러 가보니 쿨쿨 주무신다. 정신없이 주무신다.

며칠 전만해도 잠을 못 주무셔서 애를 태우던 분이 이렇게 꿀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리다가는 저녁에 안주무실까봐 깨워보기로 했다. 억지로 깨워 정신이 들게 했다. 호스피스에 오셔서 한번도 견지 못하시고 눕던지 앉아만 계시더니 이거 큰일이구나 싶어 임OO님께 발맞사지를 받으시라고 주위분들과 함께 권유해서 시작을 했다.

조금씩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다. 말씀도 하시고 농담을 하면 웃으시기도 하신다. 딸 여섯 명에 아들 하나를 두셨다가 옛날 나의 친구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렸다.

“내 친구는 부산에 살고 친구 부모님은 서울 아현동에 살고 계셨다. 이북에서 나온 분이고 자수성가하신 분이다. 친구가 결혼하여 부산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면서 첫아이를 낳을 때 쯤 서울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무엇을 낳았느냐?” “예, 아버님 공주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 키워라.”

그리고 두 해가 지나 다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번엔 무엇을 낳았느냐?” “예, 아버님 이번엔 옹주를 얻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건강하게 잘 키워라.”

그리고 두 해가 다시 흘러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어떻게 되었느냐?” “…….”

“이번엔 어떻게 되었느냐니까?” “…….”

친구 녀석이 계속 말을 못하니까 버럭 화를 내시는데 ‘퍽 썩그렁’ 뭐 터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티비 브라운관에다 전화통을 내던졌던…….

옛날 어르신들은 사내아이를 집안에 기둥으로 여기시어 그렇게 선호하셨는데 임OO님이 딸만 여섯을 낳으면서 받았을 심리적 스트레스가 어땠겠는가?

발마사지 영향인지 내 얘기가 재미있었는지 얘기보따리가 나오신다.

어저께 아들이 낳은 지 25일밖에 안된 손주 녀석을 안고 임OO께 보여 드릴려고 왔다고 한다. 손주 얘기가 나오기만해도 즐거워 하시고 이제 여한이 없으시란다.

안아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좋아하시며 “고놈이 묵직 하던데” 하신다.

할머니 본인은 충주가 고향이란다. 할아버지는 이북 용진군 출신이고 피란 와서 열 일곱살에 살기가 힘들어 9년간 군생활을 하셨단다. 군생활이 끝나고 군에 같이 있던 가까운 동기생이 충주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놀러왔다가 인연이 되려고 두분이 만나게 되었다면서 남편도 외톨이로 외로워서 술을 즐겨 마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털어 놓으신다. 손주딸 ‘혜인’이 얘기를 하신다. 14살 이란다. 그 다음이 어제 데리고 왔던 둘째 손주 녀석이니 14년 터울이다. 무슨 곡절이 있었지 했는데 과거 얘기를 다 하신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며느리 나이가 18살 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어리지 않느냐’ 하고 말려 보았는데 아들이 괜찮다고 우기길래 ‘그래 마음만 맞고 잘 살면 되겠지’ 하고 결혼을 시켰단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고 나서 아이가 한두살되던 해 두 내외가 싸움을 하고 안사돈도 올라오고 하면서 더 악화되어 며느리가 아이만 놓고 떠나버렸단다. 충주에 영감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와 부천에 와보니 아들과 손주딸만 덩그러니 있기에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고 앞이 캄캄해지더라. 아들 녀석이 “한 2년만 키워주세요, 어머니!” 부탁을 하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 말이다. 그래서 어린 손주를 할머니가 키우게 되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두분 노인네들 한테는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2년이 뭐야 10여 년을 더 키우게 되었다. 이제 기가 다하고 그러고 있던 터에 아들이 새며느리

를 데리고 와서 두 번째 손주를 얻게 해주니 기쁠 수밖에 ……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여리시어 반찬 봉사 등 봉사생활을 4년씩이나 하셨다.

봉사하러 갔는데 성질이 꼬장꼬장한 할머님이 늦으면 늦는다고, 일찍 오면 일찍 온다고 일일이 따지는 분도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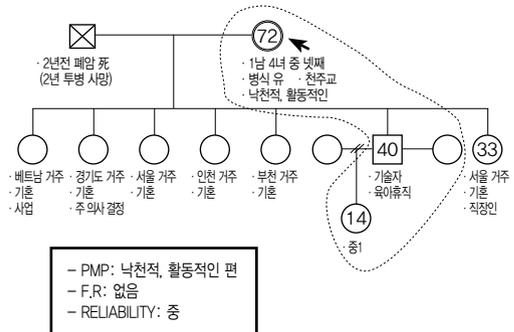
아직도 임OO 님과의 만남은 계속 되고 있고 한생의 남은 여생이 질병으로 마감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마음 안에 남아있는 앙금의 보따리를 풀어내는 시간이 되어 새처럼 자유로이 예수님께 가지길 두 손 모아 기도해본다.

사회복지사

1. 일반적 사항

- 성명: 임OO
- 성별/ 연령: F/72
- 주거형태: 전세 5,000만원(아들 집)
- 학력: 초졸
- 종교: 천주교(테레사)
- 결혼상태: 사별(2년 전)
- 직업: 무직
- 의료보험: 건강보험(아들)
- 사회보험: 치매보험 1개(입원비 1일 만원 지원)
- 주수입원: 아들(월 200만원 내외)
- 사회적 지원: 보건소 암 의료비 지원금 100만원 수령
- 개입기간: 2010.10.20 ~ 입원중
- 입원경위: 아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입원 결정(환자는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 부재).

2. 가계도



3. 발달력

- 병식: 의료진, 가족들로부터 병식 통보 받고, 최근 집에서 옷정리 등 임중준 비함.
- 충주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10여 년 전부터 아들이 이혼 후 혼자 딸을 양육하는 부담으로 상경. 남편과 떨어져 손녀를 돌보며 아

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

- 남편 투병 당시에도 자녀들이 맡아하였고, 왕래 거의 없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음.
- 평소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꺼려하고, 반찬 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적인 편.
- 입원 일주일 전부터 점차 거동이 불가능하여 휠체어에 의지하자, “못 걸으면 어떡해”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약 먹으면 나올 수 있다는 기대치 높음. 간병인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과 불면증, 통증 호소로 “그만 살아야 되겠다” 표현 횟수가 늘어남.

4. 가족배경

- 결정권: 아들이 주 결정을 맡아 진행. 딸들 중 둘째 딸이 결정을 많이 돕는 편.
- 딸: 딸들은 직장및가정일로 병문 찾지 못하며 간헐적으로 전화 안부 정도만 소통.
- 아들: 자녀 출산으로 1개월째 휴직 중이며 11월 경부터 복귀 예정. 환자가 가장 의지, 돈독한 관계로 매일 병실 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 제공.
- 손녀딸: 환자가 양육을 맡아 돈독한 관계로 몇 차례 병문통해 지지 제공.

5. 장례준비

남편이 참전용사로 국립묘지 매장됨. 환자 임종 후 합장 계획.

6. 평가 및 개입

▶ 심리적 측면:

〈환자〉

- 1) 불면, 통증, 거동 불가능한 상황 등 의료적 상태 악화로 삶에 의지 낮음. 신체 기능 변화 및 임종 가능성에 대한 수용 어려움.
 - 입원 후 증상 및 통증 완화되면서 Rapport 관계 형성.

→ 임종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Support 및 ventilation 제공.

→ 호스피스에서의 질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make a wish 유도.

“자녀들도 모두 출가시켰고, 막내딸이 아직 애기가 없는 것 말고는…… 그것은 하늘이 해주시겠지. 이제 아들도 장가보내고 손주도 보고 걱정할 것이 없어. 여러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녔어 여기서 마무리 하고 싶어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만 도와줘. 그렇게 도와줘.”

2) 이혼한 아들과 손녀를 돌보면서 힘들었던 삶에 대한 아픔.

→ 살아온 생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 유도.

→ 출가한 자녀들, 아들의 재혼, 성장한 손녀 통해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및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 부여.

〈아들〉

환자와 돈독한 애착관계로 supportive care 제공.

→ 아들의 supportive care에 긍정적 feedback 제공.

→ 환자가 살아온 생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칭찬 제공 유도.

→ 환자 Needs에 반응하고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면담.

▶ 경제적 측면: 아들이 병원비 및 간병비 부담. 누나들과 상의하에 나누어 부담 계획. 입원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 호소.

→ 보건소 암 의료비 지원금 수령

→ 경제적 측면에서 f/u할 계획.

▶ 재활 및 사회복귀 측면: 가족들의 상실감(아들, 손녀)에 대해 사별가족 f/u 실시 할 계획.

의사

1. 대상자

- 입○○
- 나이/성별: 72/F
- 허리, 다리 통증 (시작-내원 한달 전)

2. 현 병력

- 2010.03 : 허리, 양쪽 허벅지부위 통증으로 신경외과 내원
- 2010.03 : PET CT 촬영하여 폐암의 전신전전이 (뼈,흉막) 의증
- 2010.04 :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시행하여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
 - 항암치료는 거부하였으며 가족 상의하에 보존적치료만 시행하기로 함.
 - 요양병원에서 fentanyl patch 25mcg로 조절하던 중, 최근 통증 악화, 전신 쇠약 악화되어 입원.

3. 과거력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

4. 이학적소견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 안정



5. 2010.03.24

- 1) R/O Malignant tumor in central portion of right lower lobe with right anterior pleural metastasis.
- 2) Bone metastases in sternum, left 2nd & right 4th ribs, L4 vertebra, right pelvic bones and right femur.

6. 진단

비소세포성 폐암 (삼암)

- 다발성 골전이, 다발성 흉막전이, 다발성 림프절 전이.

7. 계획

1) 통증 조절

- 모르핀으로 조절.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로 뼈전이로 인한 통증 조절.
- GABA 유도체로 척추신경 전이로 인한 통증 조절
→ 마취통증의학과 협진하여, nerve block예정.

2) 호스피스 팀 접근

경과

- 10.21 morphine 30mg, ketorolac 60mg IV
 - 10.22 morphine 50mg, ketorolac 60mg IV
 - 10.23 morphine 50mg, ketorolac 60mg IV, nimesulid 200mg, gabapentin 600mg po
 - 10.28 morphine 50mg, diclofenac 150mg IV, nimesulid 200mg, gabapentin 600mg po
- 증상 호전됨.

간호사

1. 대상자

- 임○○ 님
- 진 단 명: 폐암, 다발성 전이(갑상선, 뼈전이)
- 재원기간: 2010년 10월 20일 - 31일

2. 개인력

- 성격: 자상하고 참을성 있고 조용한 편임
- 종교: 가톨릭 (데레사)
- 병식 / 말기암 인식: 없음

3. 환자사정

건강지각 / 관리양상

- 말기암에 대해 환자나 가족이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주변정리하고 입원하심.

영양 / 대사양상

- 일반죽으로 드시며 식욕부진 상태임. 치아상태는 전부 의치이며 피부는 건조상태임

배설양상

- 대변: 2-3일/1회(딱딱한 변), 배뇨 5회/1일

인식 및 지각양상

- 왼쪽 귀 들리지 않으며, 일상적인 대화 가능함.

활동 및 운동양상

- 혼자서 식사가 가능하며 부축해 드리면 화장실 다녀오실 수 있음.

수면/휴식양상

- 수면은 4-5시간/ 1일 가능하나 통증으로 인해 숙면 취하지 못함.

정서 / 자아개념양상

- 통증으로 인한 불안, 우울(살고 싶지 않다)

영적양상

- 10여 년 전 부터 신앙생활하지 않음

통증양상

- 골반과 하지로 펜타닐 패취 25 mug *1개 부착하고 오심.

약물요법

- 10월 20일-마약성 진통제 1회사용(30/3mg)
- 10월 21일-마약성 진통제 8회사용, 수면제 2회(30/5mg), 진통보조제 1회(케토라신)
- 10월 22일-마약성 진통제 4회(50/5mg) 진정제 2회, 진통보조제 1회(케토라신)
- 10월 23일-마약성 진통제 3회(50/5mg) / 가바펜틴 경구약으로 추가
- 10월 24일-마약성 진통제 1회(50/5mg)
- 10월 25일-마약성 진통제 2회(50/5mg)
- 10월 26일-마약성 진통제 2회(50/5mg)
- 10월 27일-마약성 진통제 6회(50/5mg) N-oxy 3T# 3
- 10월 28일-마약성 진통제 3회(50/5mg), DCFA 1회

3. 간호과정

통증

- 1) 주관적 자료: “ 왼쪽 다리가 쭈시고 저려요”
- 2) 객관적자료
- NRS 6점
- 폐암, 다발성 전이(갑상선, 뼈전이)
- 3) 간호계획 및 수행
 - ① 마약성 진통제와 진통보조제를 투여 한다.
 - ② 아픔을 표현을 하도록 격려함.
 - ③ 가족이 2회/주 방문하게 한다.
 - ④ 조금 아플시 바로 이야기 하도록 가족, 간병인에게 통증교육 실시한다.
 - ⑤ 통증의 원인과 양상을 파악하여 중재한다.
 - ⑥ NRS 2점
- 4) 평가
 - ① 마약성진통제를 5% 포도당 수액에 혼합하여 주입 중임.
 - ② 교육의 효과로 조금 아플시 간병인 바로 와

서 간호사에게 말함.

- ③ 아들부부와 생후 25일 된 손주 방문하여 웃으시고 안고 계심.
- ④ 저리고 쭈시는 뼈 전이로 진통보조제(케토라신, 발렌탁) 투여되어 통증 감소함(NRS 2점)

영적 불안

1) 주관적 자료

“기도할 줄 몰라”, “나도 데레사로 세례를 받았는데……”

2) 객관적 자료

50년 전에 청주에서 데레사로 영세 받았으나 현재는 신앙생활하지 않음

3) 간호계획 및 수행

- ① 매일 원목자 방문하도록 한다.
- ② 자원봉사자들이 발맞사지하면서 대화하도록 한다.
- ③ 고해성사 볼 수 있도록 주선한다.
- ④ 함께 5회 /주 봉사자들과 함께 기도한다.

4) 평가

- ① 원목자와 방문 후 마음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다 털어놓으시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보심.

- ② 금요팀 봉사자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말함.

- ③ 매일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비의 기도 바치심.

- ④ 작은알 묵주 드렸더니 큰알 묵주 달라고 하여 갖다드리고 옆 침대에 있는 환자 가족에게 묵주기도 하시는 법 알려 달라고 하심.

후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통증은 복합적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고 실제로 관찰 될 수 있었다. 초반에 수면장애가 있어서 약물요법을 시행했으나 약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오는 통증이었다. 고해성사 전에는 많은 걱정과 근심, 갈등이 있었지만 50년만의 하느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셨으며 이제는 웃을 수 있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은 끝이 났고 이곳이 내가 하느님에게로 가기까지의 머무는 곳이다.” 라고 하셨다.

하느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리라고 다짐해 본다.